

곡성군수, 사업장 점검 '동분서주'

도립사 관광지 등 29개소 방문 트렌드 기반 특색 콘텐츠 주문 안전 시설 조성·빠른 추진 강조

이상철 곡성군수가 무더위 속에도 현안 사업장 챙기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8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 군수는 군정 주요 사업을 빠르게 파악하고 민선 8기 군정 목표에 맞춰 속도감 있게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권역별 주요 사업장과 시설 29개소에 대해 순회 점검을 하고 있다.

첫날인 14일에는 도립사 관광지 활성화 사업 등 곡성읍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현장을 찾았다. 도립사는 곡성군의 대표 사찰 중 하나로 도립사 옆을 흐르는 계곡은 피서객이 많이 찾는 여름철 대표 관광지이다.

곡성군은 최근 어린이 물놀이터와 계곡 탐방로 조성을 완료해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내년까지 캠핑장 시설을 개선하고 콘텐츠를 보강할 계획이다.

이 군수는 방문객이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시설 조성을 강조하며, 관광 트렌드에 맞춘 특색 있는 시설과 콘텐츠를 주문했다.

이후 곡성을 시가지지를 찾아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비빌 언덕25, 반다비체육센터, 곡성문화누리도서관 등 대규모 사업장을 꼼꼼하게 살폈다. 곡성읍권이 복합 거점의 역할을 하기 위해 현재 조성하는 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18일에는 오곡면 송정리 코레일 인재개발원 곡성교육원 신축현장과 석곡권역 주요 현안 사업장을 방문했다. 코레일 교육원 신축현장에서는 코레일 관련 건축부서와 공사 관계자를 격려했다. 코레일 곡성교육원은 24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교육 및 숙박 시설로 올해 말 준공해 내년부터 운영한다. 곡성군은 일자리 창출, 지역민 시설 활용, 지역 농산물 공급 등을 통해 코레일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석곡권역에서는 민선 8기 권역별 맞춤형 공약인 생태 힐링 중심 거점과 관련된 주요 사업장을 살폈다. 곡성군은 죽곡 인성원 주변 체협관 광 조성사업, 대항강 출렁다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선형관광거점화사업 등 보성강 주변 자연

을 활용에 다양한 관광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장 점검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옥곡권역 사업장 방문이 계획돼 있다. 먼저 곡성형 창의 숲 교육 체험장인 '제월섬 꿈놀자학교'를 방문한다. 이어 주민 참여 문화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는 입면 옛 장터를 찾아 장터 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옥곡면사무소 인근 준공을 앞두고 있는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현장에서는 아름드리나눔센터와 국악전수관 활용 방안을 구상할 생각이다. 또 운곡특화농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사업 추진과 현장 관계자 격려를 위해 내년 개장을 목표로 민간에서 진행 중인 남해CC조성사업 현장도 방문한다.

이상철 군수는 "공약 사업과 시책 사업을 효과적이고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안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하겠다"며 "주민, 공직자,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힘을 합쳐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한정길 기자



여수시가 최석호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을 여수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여수시 제공

여수,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의원 홍보대사 위촉

여수시가 최근 최석호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을 여수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여수시는 평소 미국 내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던 최 의원이 2026여수세계박람회 홍보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판단해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정기명 시장은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석호 의원이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여수시의 홍보대사로서 아름다운 여수를 미국 전역에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답하고 이날 자리를 함께한 주철현, 김희재 국회의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진 면담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여바인시와 여수시 간의 국제 자매결연 MOU체결과 우호 증진을 위한 논의들이 이뤄졌다. 또한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열리는 '2026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등 미주 지역에서 응원과 홍보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순천시가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청소년 정책캠프'를 운영했다. /순천시 제공

순천, '청소년 정책캠프' 운영

제안서 작성 요령 등 교육

순천시가 최근 청소년수련원에서 초·중·고 청소년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청소년 정책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정책캠프는 15개 모듈로 나눠 활동이 이뤄졌고 전문가들로부터 청소년정책 참여활동의 중요성과 제안서 작성요령을 배우며 실제 정책제안서를 작성했다.

지난해 청소년정책 박람회 때 제안된 정책 내용과 실제 반영된 사례들을 듣는 시간도 가

졌다.

참여청소년들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정책투표에 사용될 동영상이나 현장 투표용 자료를 만들기 내달 4일 '2022년 청소년정책 박람회'에서 순천시교육지원청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정책제안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제안하게 된 배경,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의 제안서를 작성해 오는 20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순천=박경식 기자

보성, '지방재정' 포럼 성료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 초청

보성군이 최근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을 초청해 보성 자치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 주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방재정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현황과 과제'로 선정됐다.

안도걸 전 차관은 우리나라 지방재정 상황, 재정 운영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앞으로 보성군이 추진해야 할 재정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다시 뛰는 보성 3·6·5'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출범한 보성군민선 8기의 목표 달성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실현과 재정 건전성 확보 방향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공무원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안 전 차관은 "민선 8기가 안정적으로 출범한 만큼 김철우 군수와 직원이 신규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 방안에 집중해 협력한다면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보성군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백종두 기자

여수, 꼬마 탄소 어린이 미술제 '호응'

작품 2,012점 타일벽화 제작

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로 열리는 '꼬마 탄소 어린이 미술제'가 학생들의 참여 열기로 뜨겁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작품 4,728점을 여수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 이후 박람회재단에서 작품을 전달

받아 디지털화 작업을 마치고 지난 6일 타일 벽화로 제작된 2,012점의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미술협회와 교육청의 도움으로 작품을 선정했으며, 현재 타일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어린이들의 특색 튀는 아이디어로 만든 타일은 오는 21일까지 박람회장 한국관 1층 필로티 공간에 타일 벽화로 설치될 예정이며 이곳에서 영구 전시된다.

/여수=곽재영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순천청암고, 직업체험 재능기부활동

순천청암고가 최근 도사동 대대경로당을 찾아 혁신지원사업의 하나인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교사와 학생 3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건강체조, 퍼즐맞추기, 네일아트 등 재능을 기부했다.

네일아트를 받은 한 어르신은 "내

나이 80살에 매니큐어는 처음 발라봤다"며 "손톱에 바른 진분홍 색깔이 오늘 입고 온 옷 색깔과 딱 맞아 너무 예쁘고 기분이 좋다"며 활짝 웃었다.

오승철 순천청암고 교장은 "학생들이 지역주민들과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마련해 열린 학교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경식 기자



여수시민복지포럼, '삼계탕 Day' 개최

(사)여수시민복지포럼이 최근 섬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섬 어르신 삼계탕 Day' 행사를 개최했다.

여수시민복지포럼은 시민들의 모금액 950만 원,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만 원, 양계장협회 400마리 후원 등으로 삼계탕 3,000마리를 마련했다.

포장된 삼계탕은 자원봉사자 50여 명과 각 마을 이장이 화정면, 남면, 삼산면의 어르신들에게 직접 안부를 살피며 전달했다.

임재욱 이사장은 "매년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시민들과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지역복지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광양제철 설비부문, 안전역량 향상 토론회

광양제철소 설비부문이 직원 1,581명을 대상으로 최근 안전역량 향상 토론회를 열고 안전의식을 높이고 있다.

직원들은 정비 작업의 특징, TBM 학습 등 이론 교육과 역할극을 통한 TBM 바로 알기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교육을 통해 상황별

잠재위험 발굴 및 대책 수립 등 위험 예지 훈련을 내실화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찬주 설비부소장은 "작업계획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안전 프로세스를 학습해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동현 기자